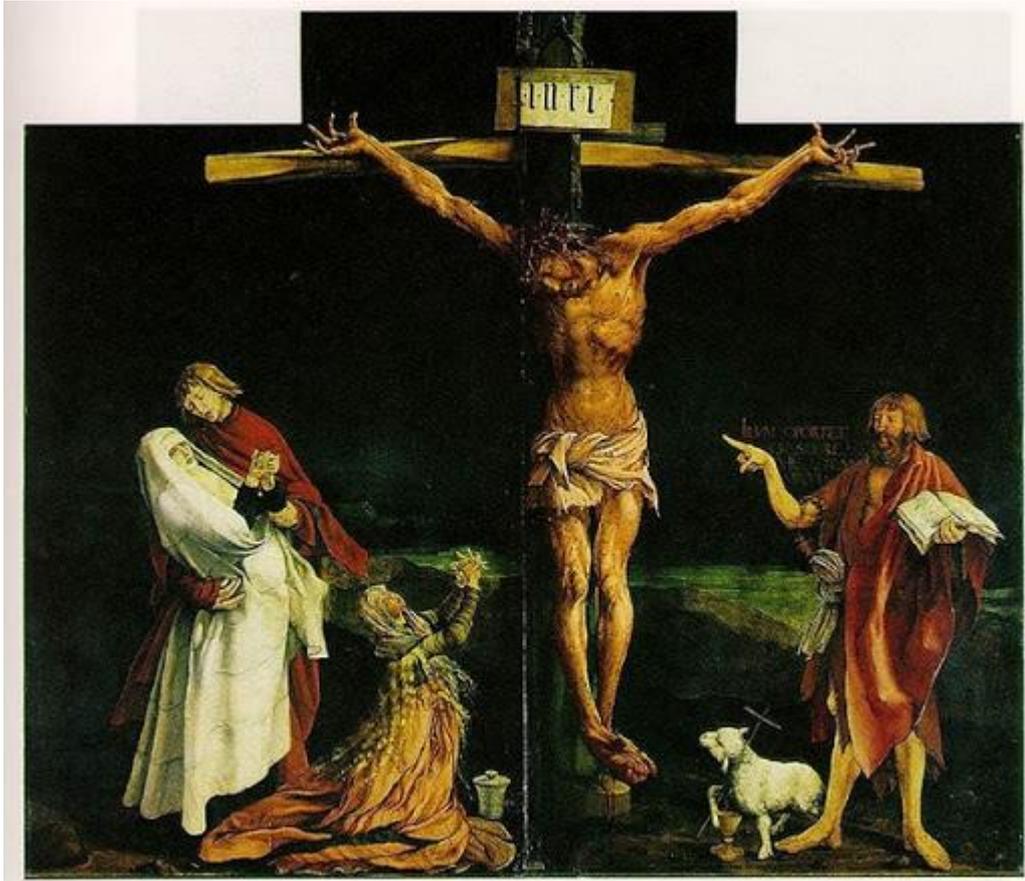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예배 예식서

2020. 11. 1. 11:28- / 프라하 꼬빌리시교회



마티아스 그뤼네발트, <아아젠하임 제단화> (1510-1515)

일러두기

1.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련된 간단한 주일 가정예배 예식서입니다.
2. 그리스도의 생명 사랑의 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실 참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3. [○인도자/◎다같이] -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합니다.
4. 찬양/묵도로 마음을 정돈하며 예배를 시작하고, 봉헌은 미리 준비된 함/용기에 합니다.

목도

예배의 초청: 시편 18편

-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18)
- ◎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19)
-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25)
- ◎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26)
-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27)
- ◎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28) / ◎ 아멘

여는 기도

○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지난 한주간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모든 좋은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나를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당신의 의로운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우리의 어둠을 밝히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 아멘.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으로 다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 ◎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 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감사찬송

○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통40/새79) 함께 하겠습니다.

79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통일 40)

보통으로

1. 주하나 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2. 숲속이 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들과
 3. 주하나 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 주셨네
 4. 내주에 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 으로 날인도 하리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 성 주님의 권 능 우주에 찻 네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숨 쉴 노래 하도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 를 대 속 하 셧 네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 하며 영원히 주 를 찬 양 하 리 라

후렴

주님의 높 고 위대 하심 을 내 영혼 이 찬양 하 네

주님의 높 고 위대 하심 을 내 영혼 이 찬양 하 네

성경 읽기

○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 아멘

말씀 나눔

○ 다음 질문들을 따라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1)
2. 그 결과 지금 우리는 누구입니까? (2)
3.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4.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3)
5. 예배자료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며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6. 아래의 설교문을 나누어 읽고, 각자 조용히 1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로마제국 하에서 소수자로 존재하며 시험과 박해의 위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너무나 보잘 것 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소망이 흐릿해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한 후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 그 사랑이 이 세상이 속한 사랑이 아니므로, 그 사랑의 결과물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은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하여 규정하고 평가합니다. 세상이 그 가치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야 그들의 자유이겠지만,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거나 그 기준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게 정상입니다.

○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근대 서구인들은 나를 알려면 나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속의 나이며, 너가 있기에 내가 있고,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새

롭게 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를 규정하는 가장 확실한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 그럼 장래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여기서 이미 아는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 혹은 다시 오심입니다. 그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장래의 우리에게 대해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역시나 그는 장래에 나타나실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장래의 우리에게 대해 말합니다. 그 때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과 닮은 모습일 거라 합니다. 그 날에 우리가 보게 될 예수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분의 참모습 그대로일 것이므로, 지금 여기서 그분을 알고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느덧 그분과 닮은 모습이 되어 그분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합니다. 여기서 '깨끗함'이란 '마음의 청결함'과 '행위의 의로움' 둘 다를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청결한 마음과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날 소망 가운데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힘쓰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고행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그저 자꾸 바라보다 닮게 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후3:18)

○ 구원은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 얻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믿음은 결코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초청에 응답해 뛰어드는 일 속에도 이미 믿음과 행위는 결합되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의 길을 따르는 일 속에도 믿음과 행위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믿는 단계와 행하는 단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곧 행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단호히 말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계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몇 년쯤 지나 고민해볼 일이 아니고, 이 결단과 함께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나의 모든 일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과 봉헌

○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통495/새438)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중에 봉헌하겠습니다.

438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통일 495)

보통으로

1.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2. 주의 얼굴 뵈기 전에 멀리 퇴 던 하늘 나라
 3.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 나 궁궐이 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 다
 내 맘 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어디 나 하늘 나라

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어디 나 하늘 나라

중보기도

- 다함께 기도합니다.
- 사랑의 주님,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아픔과 죽음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삶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도

움의 길이 끊긴 사람들과 함께하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섬기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이 무력한 상황 속에서 그 동안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깨닫게 하시고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각 가정에 함께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생활을 지켜주시며, 이 고난의 시간을 유익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이 꼬빌리시교회와 세상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당신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하게 하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당신의 평화와 은혜를 내려주소서. / ◎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영광찬송

○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원제:이 믿음 더욱 굳세라)

나영수

1. 여기에 -모인우리 주의 온 총발은자여 라
 이 -뜻하신 일 헤아 리 기어엿더라 도

주께서 -이 자리 에 함께 계 심을 아노 라
 언제나 -주 뜻안 에 내가 있 음을 아노 라

언제 나 -주님만 을 찬양 하 며 따라가리 니
 사랑 의 -말씀들 이 나를 더 옥새롭게하 니

시험 을 -당할 때 도 함께 계 심을 믿노 라
 때로 는 -넘어져 도 최후 승 리를 믿노 라

이 믿음 더 옥굳 세 라 주가 지켜 주신 다

어둔 방 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 여 주신 다 2. 주님

다 주의 뜻 이뤄 지는 날까지 믿음 더 옥굳 세 라 -

교회소식

1. 서로를 축복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2.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11월 20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주일(11.8)에도 교회에서의 공동예배는 없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예배자료를 참고하셔서 각자 최선의 길을 찾아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3.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계속 타인에 대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누구든 걸릴 수 있고 아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의심 증세가 있을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주어진 정보를 따라 책임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올해 보흐니체병원 환우들을 위한 음식바자회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주문방식 음식 및 물품 바자회>(+비대면아트워크숍)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이번 주일 로마서 성경공부는 없겠습니다.

축복과 파송

○ 에베소서 3장 16-19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
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
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
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 ◎ **아멘.**

○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